

“할아버지 오지호 화풍 이어 나만의 세계 찾아”

12일까지 총장22 오수경 개인전 신작7점 포함 총 회화 38점 선보 오방색 소재 탈지역적 정서 담아 “실크로드서 만난 순례자 발자취”

사과나무 그림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담아낸 오수경 작가가 순례자로 분해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명은 ‘순례자 필그림(Pilgrim)’으로 서양화가로서 유럽 중심적 색채를 탈피해 여러 지역의 순례 경험을 화폭에 담아내겠다는 의미다. 한국적 인상주의를 완성한 광주의 화백 오지호의 손녀이자 ‘오방정색’의 작가 오승운 화백의 장녀인 오수경 작가가 자신의 배경을 넘어 새롭게 발견한 화풍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는 30일 오프닝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광주 동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총장22 갤러리서 열린다.

“순례자는 성지를 방문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번 전시에서 나의 작품은 그 필그림의 발자취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오수경 작가노트 중)”

이번 전시에서 오 작가는 ‘순례자(Philgrim)’를 주제로 현장 법사가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까지 순례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해초·원효 대사의 순례하는 마음을 담아



광주 동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총장22 갤러리에서 만난 오수경 작가.

낸 신작 7점을 함께 선보인다. 기존에 선보였던 사과나무, 딸기밭, 범부채 등의 그림까지 총 38점을 내걸었다. 특히 신작 7점은 오방색 소재로 부처, 석류, 연꽃 등을 그려 넣은 ‘순례자’ 시리즈다. 특유의 동양적 분위기가 눈길을 사로 잡지만, 보면 볼수록 특정 지역을 알 수 없는 ‘탈지역

적’ 화풍이 사유의 폭을 넓힌다. 오수경 작가는 서양화로 화단에 입문했으면서도 유럽 중심적 색채를 탈피하고자 노력해온 예술가다. 이번 전시를 통해 고대 동아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서아시아 지역의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작품으로 관람객을 찾을 예정이다. 전시

기간 동안 ‘실크로드’라는 순례길에서 발견하는 작은 이야기들이 쌓여 순례자의 가치관이 변해가는 심리적 과정을 작품 속에 녹여낸 놀라운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오수경 작가는 “사과나무 작업은 올해 끝으로 하고 작가로서 새로운 세계로 나

아가고 한다. 할아버지인 오지호 화백과 아버지인 오승운 화백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아카데미적이고 서양화풍의 분위기를 넘어선 작업을 해야 한다는 나름의 숙제가 있었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순례자’가 바로 앞으로 내가 몰두해야 하는 나만의 세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새롭게 발견한 화풍에 대해 나보다 낫다고 칭찬해 주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최초의 인상주의 화가 오지호 화백의 손녀이며 오방색의 대가인 오승운 화백의 장녀인 오수경 작가는 유전자에 각인된 한국 근대 미술의 역사이자 호남 미술사의 근간이 되는 가계를 오롯이 작품 세계에 독창적인 화법으로 계승하고 창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작가는 자신의 유전자에 각인된 한국 근대미술의 역사이자 호남미술사의 근간을 이루는 가계를 오롯이 그녀의 작품세계에 그녀만의 독창적인 화법으로 계승·창작하고 있다.

오수경 작가는 이화여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서울시립미술관과 광주 시립미술관, 홍콩·북경대사관 관저 등에 그의 작품이 소장돼 있으며, 이화여대, 전남대, 광주교대 등에 출강했고, 현재 한국미협 회원, 채립회원, (사)한국여류작가 협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식탁에 차려낸 인생과 사회

9일 ACC 아시아콘텐츠 공연 무용 ‘속삭임...’ 연극 ‘파인...’

다층적인 사회문화현상의 상징인 식탁을 소재로 한 무용과 연극이 관객을 만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9일 ‘ACC 아시아콘텐츠 공연개발사업’으로 제작된 시범공연 ‘속삭임의 식탁(무용)’과 ‘파인 다이닝(연극)’ 등 공연 두편을 무대에 올린다.

‘ACC 아시아콘텐츠 공연개발사업’은 아시아 동시대 담론과 창작매체를 활용해 실험적 공연을 만드는 사업이다. ACC는 2명의 연출가를 선정해 연구모임 및 ACC 창·제작 프로듀싱을 거쳐 두 편의 시범공연을 창·제작했다.

유선후 연출가가 극작·연출을 맡은 ‘속삭임의 식탁’은 현대 도시인들의 심리적 징후인 ‘혼밥 현상’을 예술적 환상으로 그려낸 무용공연이다.

‘왜 혼자만의 식사가 편해지는 세상이 되었을까’하는 연출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공연은 ‘혼밥’을 기꺼이 선택하거나 ‘혼밥’의 상황에 내몰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역설의 식탁 위에 차려낸다. 송지훈 음악감독, 장경희 소리디자이너, 김일현 영상감독 등이 참여해 관객을 ‘혼밥’의 섬으로 초대한다.

‘파인 다이닝’은 김미란 연출가가 이끄는 연극작품이다. 구술생애사적 측면에서 연출가 본인 아버지의 이야기를 인터뷰해 희곡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한때 경양 식당 주방장이었던 아버지의 노동 연대기를 통해 한국 외식문화사와 도시화·산업화의 흐름을 함께 살펴본다.

‘파인 다이닝’은 소시민적인 한 인물의

삶을 세밀하게 담아내 소소한 감동을 차려낸다.

또 도시화와 산업화의 흐름 속에 밀려난 존재들을 기억하고 감각한다. 이승호 음악감독, 이은석 무대디자이너 등이 무대를 꾸미며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한 성노진, 양서빈 배우가 아버지와 딸로 분해 열연한다.

ACC는 올해 아시아 동시대 담론과 ACC의 핵심주제인 ‘도시문화’를 연계한 ‘식탁과 기억’을 주제로 연출가 및 구성안을 공개 모집했다.

이번 공모에는 무용부문에서 유선후 안무가 겸 연출가가, 연극부문에서는 김미란 연출가가 최종 선정됐다.

유 연출가는 지난 2017 영국에든버러 페스티벌 평론가 평가에서 별점 5점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안무가다.

김 연출가는 지난 2021 대한민국 신진연출가전에 선정되는 등 신진연출가로서 다양한 실험적 공연으로 주목받고 있다.

ACC는 두 연출가를 비롯해 연극, 무용, 인문사회학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난 8-9월 작품 방향성 정립을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극작, 창작팀 구성, 연습 등의 과정을 거쳐 ‘속삭임의 식탁’과 ‘파인 다이닝’ 등 두 편의 시범공연이 탄생했다.

작품의 입장료는 모두 무료다. ‘속삭임의 식탁’은 오는 9일 오후 2시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만날 수 있다. 관람연령은 7세 이상이다.

‘파인 다이닝’은 같은 날 오후 5시 ACC아틀리에1에서 진행되며, 관람연령은 13세 이상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6일 설명회 등 22일까지 접수 전체 지원규모 20억9000만원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2024년도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모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의 전체 지원규모는 20억 9000만여원으로 2023년에 비해 3억여원이 줄었다. 다만 지원 받는 단체 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중 단체별 지원규모가 가장 큰 공연장장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공공공연장과 예술단체가 매칭되어 사업을 추

진하는 사업이다. 공공 공연장과 협약을 체결해야하는 민간단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폭넓은 작품 심의로 지역의 우수 공연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취지로, 공공 공연장을 우선 신청(공모)하여 5개 공연장을 선정했다. 신청 단체는 기 선정된 5개 공공공연장 중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신청하게 되고, 선정된 총 5개 단체에 2억 5000여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전통·다원 등 문화예술 전 장르를 지원하며 단체 및 개인 예술인에게 총 18억4000만 원 223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별로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11억4500만원 △청년예술인장착지원 2억6000만원 △광주

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지원사업 1억 7000만원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사업 1억6500만원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1억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공지사항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6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공모 접수는 오는 4일부터 22일 오후 5시 59분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심사는 내년 1월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062-670-7464·7467·7468·7463)으로 문의.

도선인 기자

공난숙·이명희 시인 광주문학상 수상

올해의 작품상에 김재유·강정삼 작가

공난숙 시인과, 이명희 시조시인이 2023 광주문학상을 수상했다.

‘광주문학’ 2022년 겨울호부터 2023년 가을호까지 수록된 회원 작품 중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에 수여되는 ‘올해의 작품상’에는 김재유 수필가와 강정삼 동시작가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지난 2007년 계간 ‘문학춘추’를 통해 등단한 공난숙 시인은 한국현대미술협회가 주최한 미술대전에서 서양화 부문에 입선하는 등 문학과 미술 분야를 넘는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조세계, 문학춘추 시 신인상으로 등단한 이명희 시조시인은 대한민국 문예창작 우수작가상과 한국여성시조문학상, 소파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시조의 저변 확



공난숙 이명희 김재유 강정삼

대에 노력하고 있다.

동시부문 강정삼 작가와 수필부문 김재유 수필가도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광주·전남지역 문학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오덕렬 심사위원장은 “문장 표현의 최상의 방법은 ‘감동의 창조’에 있다”면서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람답게 사는 이야기

를 통해 문학의 가치를 한층 높여준 작가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시상은 (사)광주광역시문인협회 총회가 열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 3홀에서 진행된다.

도선인 기자